

다문화가정 돕고 신나게 흔들고… 고척돔 추억, 우리카드가 쓴다

8일 넥센-NC전 팬초청 이벤트
시구자 유민주, 행사비 기부도

넥센은 “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NC와 홈경기에서 ‘우리카드 쿨썸데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카드 고객이 파티세로 잘 알려진 유민주가 시구자로, 우리카드에서 후원하는 서울 종로구 다문화가족 강민석 어린이가 시타자로 나선다. 유민주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과 함께 행사비 전액을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전달하고,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을 스카이라이프에 초청해 ‘텔리민주와 함께하는 어린이 쿠킹 클래스’도 진행한다. 또 우리카드의 VIP 회원 및 가족 500여명과 우리카드에서 진행한 이벤트 당첨자 300여명이 경기를 관람한다. 시구자 유민주는 “멋진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만큼 넥센이 승리할 수 있도록 팬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팬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경기 전 2층



야외광장에서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인 ‘쿨존’과 ‘포토존’을 운영한다. ‘피칭존’에서는 게임을 통해 생수와 부채, 팔찌, 머리띠 세트, 위비인형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경기 중에도 전광판 이벤트를 통해 우리카드 웨딩밴드 세트, 히어로즈 블루투스 스피커, 히어로즈 어린이 알루미늄 배트, 우산 등의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30분간 압전 상태로 ‘히어로즈 클럽파티’가 진행된다. 여성 듀오 DJ인 ‘DJ Cymbidium’이 함께하며, 파티에 참여하는 팬들에게는 야광봉과 스마트 LED 선글라스인 케미온 선글라스, LED 응원밴드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규정 이닝으로 살펴본 각 팀 마운드 현주소



두산 니퍼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보우먼, 유희관, 장원준은 1위 질주의 축이다. 스포츠동아DB

1위 두산, 규정이닝 넘긴 투수 4명 하위권 한화·삼성 각 1명…kt ‘0명’

야구에서 규정이닝은 투수 개인기록의 기준점이 되는 지표다. 한 시즌 144경기 동안 100이닝 무실점을 거둔 투수와 200이닝 40실점을 한 투수 중 방어율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투수는 후자다. 규정이닝을 충족시켜야 개인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규정이닝은 각 팀이 치른 경기수와 동일하게 책정된다. 144경기틀 모두 치르면 투수의 규정이닝은 144이닝이 된다. 아직 시즌이 한창인 7월 현재 최대 79경기에서 최소 71경기에 이르는 게임수에 따라 각 팀은 79이닝에서 71이닝을 규정이닝으로 삼고 있다.

규정이닝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마운드 특히 선발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단한 선발진을 자랑하는 팀은 최대 4~5명에 이르는 투수들이 규정이닝을 소화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팀은 1선발 한 명 정도만 겨우 규정이닝을 채우는 것에 머문다.

7월까지 규정이닝을 넘긴 투수는 총 22명. 한 팀당 2명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편차는 존재한다. 가장 많은 규정이닝 충족 투수를 지닌 팀은 두산이다. 두산은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를 시작으로 마이클 보우먼~장원준~유희관이 모두 규정이닝(77이닝)을 넘겼

다.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4선발 유희관이 앞선 3명을 제치고 팀 내 이닝 1위(107.2이닝)에 올라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선발투수들의 고른 활약에 두산은 전반기 순항 중이다. 반면 두산의 마운드를 만발지에서 우려러보는 팀들도 존재한다. 하위권에 머문 한화와 삼성, kt가 바로 그들이다. 한화와 삼성은 시즌 중반을 넘긴 시점에서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가 각각 송은범(75이닝)과 윤성환(107.1이닝) 한 명씩에 그치고 있다. 양 팀은 올 시즌 외국인투수의 부재와 난조 등으로 흥행을 치르고 있다.

kt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외국인투수 트레이비스 밴와트가 74이닝을 던져 6일까지 규정이닝을 채웠지만, kt가 7월 75경기째에 접어들며 그마저도 조건에 미달하는 투수가 됐다.

이 같은 현실은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한명으로는 치열한 순위싸움에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발투수가 많은 이닝을 버티지 못할수록 불펜진의 부담은 늘어가고 이는 마운드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투수놀음’이라 불리는 야구에서 규정이닝을 주목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103억 vs 81억, 웃지 못할 탈꼴찌 전쟁

〈한화 팀 연봉1위〉

〈삼성 팀 연봉2위〉

한화-삼성 3연전이 눈길 끄는 이유

꼴찌냐? 5위 도약이나? 분수령
한화 홈경기 삼성만 만나면 팔팔
을 3승6패 삼성, 악몽 짚지 관심

투자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투자를 한다고 꼭 성적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2016시즌 전반기, 한화와 삼성이 ‘처절하게’ 이를 입증하고 있다. 대대적 전력보강을 감행한 한화는 103억원의 팀 연봉으로 KBO 최고 연봉구단으로 올라섰다. 정규 시즌 5년 연속 우승의 영향으로 삼성은 선수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다. 81억원으로 전체 2위 부자구단이다. 그러나 전반기 마감을 채 1주일 남긴 상황에서 두 팀은 탈꼴찌를 위해 몸부림치는 처지다. 한화와 삼성이 막내구단 kt와 탈꼴찌 싸움을 하리라고 개막 전만 해도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내용물이라면 안 되는 집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한화는 김성근 감독의 변칙적 선수단 운영의 결과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선발진의 열세를 막기 위해 불펜진의 물려라기를 반복했는데, 성적마저 좋지 못하자 투수로서 비판에 직면했다. 삼성 역시 전력 누수와 부상, 외국인선수 영입 실패 등 약재에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특히 6월 성적이 7승19패로 심각했다.

이런 두 팀이 8일부터 한화의 홈 대전에서 3연전을 갖는다. 전반기 꼴찌를 결정짓는 3연전이라 7월12~14일 마산에서 열리는 두산-NC의 1-2위 맞대결 이상의 관심을 끈다. 대전 홈팬들의 열광적 응원을 등에 업은 한화는 삼성만 만나면 초강세를 띠어왔다. 삼성 류중일 감독은 최근 2년간 심각한 한화 꼴찌



한화 김성근 감독(왼쪽)과 삼성 류중일 감독이 8일부터 탈꼴찌를 놓고 맞대결을 벌인다.

스포츠동아DB

렉스를 노출하고 있다. 올해도 3승6패의 절대열세다. 특히 6월3~5일 대구 3연전에서 삼성은 악몽 같은 1점차 3연패를 당했다.

게다가 한화는 최근 거듭된 비 덕분에 주력 불펜진이 휴식을 확보했다. 삼성도 비슷한 조건이지만 불펜보다는 선발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탈꼴찌 싸

움이기도 하지만 이 3연전에서 승수를 쌓은 팀은 단숨에 5위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 롯데, KIA 등 5위권 팀들의 경기력도 그다지 위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그렇더라도 한화와 삼성이 ‘고작’ 탈꼴찌나 5위에 목을 맨다는 현실 자체만으로 반성할 지점이 발생한다. 돈은 돈

대로 쏟아 붓고도 성적이 안 나자 비효율성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제 프런트의 스마트한 역량이 팀의 중추적 전력이 되는 세상이 온 것임을 한화, 삼성의 몰락에서 알 수 있다. 두 팀에 비해 훨씬 돈을 적게 쓰고도 효율성이 월등한 넥센과 NC가 그 반대편에 자리한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김경문 감독이 어린이 팬에 약한 이유

여의치 않아도 사인요청 무조건 OK
“나도 김용용 감독님 사인 받고 꿈 키워”

NC 김경문 감독은 팬들의 사인요청에 잘 응하는 스타일이다. 팀이 연패 중이거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구장을 찾아주는 팬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팬들의 사인요청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꼭 해주곤 한다.

이뿐만 아니다. 김 감독은 볼보이나 배트보이를 하는 지역 중학교 야구부 학생들에게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무슨 포지션이나” 등 먼저 말을 건다. “잘 먹고 잘 자야 키가 크다”, “글러브를 잘 길들여야한다” 등의 애정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김 감독은 “나 역시 어렸을 때 김용용(전 한화) 감독님을 비롯해 선배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며 “어린 시절 좋아하는 선수들의 사인을 받고 기뻐했고, 그런 부분이



NC 김경문 감독(왼쪽)이 어린이 팬들을 위해 사인을 해주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나중에 야구선수가 되는데 크게 작용했다. 프로에 들어온 뒤 나도 그런 추억을 주고 싶어서 어린이 팬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2년 한국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내건 슬로건은 ‘어린이들에게 꿈을’이었다. 현재 KBO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 좋은 추억 때문에 프로선수로서의 꿈을 키운 이들이

잠 못 드는 양상문 감독…마무리, 그것이 문제로다

25세 임정우, 35이닝 48피안타 부진
양 감독 “그래도 임정우” 리빌딩 의지

LG 양상문(사진) 감독의 목표는 재임 기간 LG가 항상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장기적이면서 깊이 있는 팀전력을 구축하는데 있다. 1994년 이후 LG는 우승조급증이 항상 큰 문제였다. 감독은 자주 교체됐고, 비전 없는 포지션 중목 투자도 빈번했다. 그 사이 프랜차이즈도 전문 인력 이탈이 있었다.

양 감독의 리빌딩에 대한 의지는 단



호하다. 팀 내 최고 프랜차이즈 스타도 이 흐름에 버텨낼 수 없었다. 팀 재건과 재설계는 두산처럼 발 빠르고 수비가 뛰어난 외야수 육성 등 각 포지션에서 특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마무리 투수가 핵심이다. 10승 투수

가 없어도 우승할 수는 있지만 수준급 마무리 투수 없는 강팀은 없다. 양 감독이 선택한 마무리 투수는 이제 25세인 젊은 영건 임정우다. 140km 후반 빠른 포심 패스트볼에 2014년 장착한 포크볼이 매력적이다.

그러나 6일까지 마무리 투수 임정우의 기록은 좋지 않다. 2승7패12세이브 방어율 5.65, 35이닝 동안 48안타를 맞았고, 23실점했다. 마무리 투수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삼진 능력은 뛰어나다. 9이닝 평균 9.51개의 삼진을 잡았다. 그러나 피안타가 많고 피장타율이

0.431로 박빙 승부에서 장타를 자주 맞는다. 이닝당 출루허용도 1.91로 마무리 투수로는 높은 편이다.

양 감독은 “팀의 미래를 위해 마무리 투수 육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솔직히 최근 고민을 많이 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다른 결론은 없다. 우리 팀 마무리는 임정우다”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다. 이어 “마무리 투수 키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임정우가 스스로 버티고 이겨내길 바란다. 구위 뿐 아니라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마무리의 자질이 있는 선수다”고 말했다. 대구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편진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